KIET

해외출장보고서

KIET 해외출장보고서 제07-27호

IEC총회 참석 및 유럽의 표준화 정책 조사

I. 출장 개요

☐ 출장자

○ 박정수(서비스산업실 연구위원)

☐ 출장지

○ 프랑스 파리

☐ 출장 기간

○2007년 10월 21일 ~ 2007년 10월 28일(6박7일)

☐ 출장 목적

○ 용역과제 “글로벌 표준경영에 관한 연구”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IEC 총회 참석 및 유럽의 표준화 정책 조사

Ⅱ. 주요 조사내용

1. 프랑스 표준협회 방문 면담

○ 산업부(Ministry for Industry) 산하의 유일한 프랑스 국가규격

(NF-Norme Francaise)을 승인하는 정부기관

○ 주요업무

- 프랑스의 국내 규격 작성과 제정을 담당하는 국내기관
- 표준규격을 제정하는 과정을 주선, 관리, 감독
- 규격 사용의 장려 및 실제로 이용도를 일선에서 협조
- CEN과 ISO의 프랑스 대표로서 기여
- 프랑스 국가규격 제정·승인, 발행 및 보급
- 제품 인증 및 시험
- 표준화, 계량, 품질관리 관련 업무 및 연구조정
- 외국규격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
-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 평가 및 전략 수립
- 유럽 및 국제표준화 활동의 참여

◇ 면담자 : Pascale Mienville(Affaires internationales),
Annick Hamel(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Manager)

◇ 면담내용

○ 현재 프랑스표준협회의 표준화 활동 현황과 향후 표준화에 대한 프랑스표준협회의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음.

○ 프랑스에서의 표준화 추진체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자인 기업, 협회, 정부 등을 기반으로 하여, 프랑스표준협회(AFNOR)와 정부 관련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.

- 이 가운데, AFNOR는 국제표준화기구(ISO)나 유럽표준화기구(CEN)의 기술위원회에 프랑스의 표준화를 대표하는 주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.

-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표준협회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이와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,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대표기구로서의 역할은 기술표준원(ISO, IEC), 정보통신부(ITU)가 행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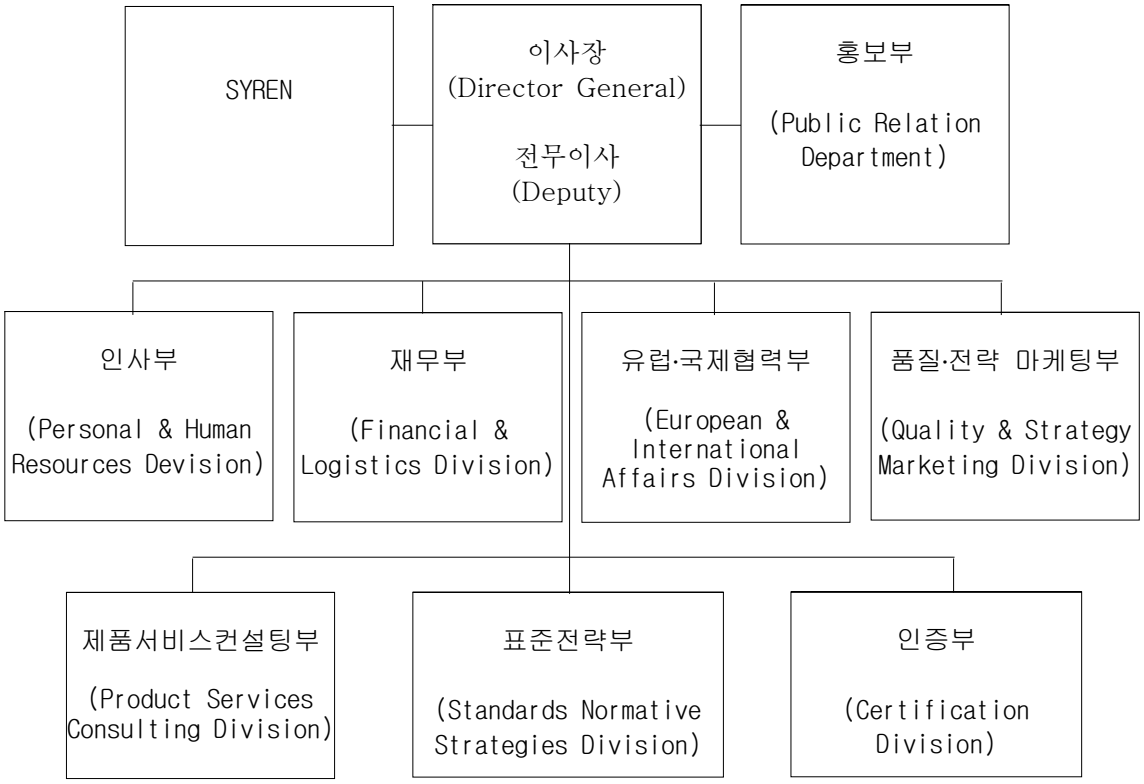
< 그림 > 프랑스 표준화 추진체계

○ 프랑스표준협회(AFNOR)는 7개 부서로는 구성되어 있음.

- 표준화 추진과 관련된 부서는 표준전략부, 유럽·국제협력부라고 할 수 있으며, 협회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인증부, 품질·전략마케팅부, 제품서비스 컨설팅부 등이 있음.

- 그 외에도 홍보부, 인사부, 재무부로 구성되어 있음.

< 그림 > 프랑스표준협회 체계도



○ AFNOR의 주요 업무는 표준화 추진, 정보 제공, 교육・훈련, 평가・인증의 네 가지로 구성됨.

- AFNOR의 기본적 업무인 표준화에는 국내외 표준화에 대한 대응, 자국 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 등임.

- 또한 표준화와 관련된 정보는 물론 기업이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정보나 절차 등에 대한 내용들을 제공함.

- 교육・훈련과 관련해서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국제표준화나 변화된 규정 등을 기업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등을 행하고 있으며, 최근에는 환경분야의 포함여부도 검토하고 있음.
  ・2006년 200여개의 교육프로그램 운영, 100여 차례의 세미나 등을 통해 10,000여명을 교육시켰음.

- ARNOR의 주요한 수익사업인 평가・인증은 제품, 시스템,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 특히 프랑스로의 재화를 수출을 위해서는 NF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음.
  ・ 현재 프랑스에는 40여개의 인증시스템이 존재함.

○ AFNOR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대상은 12개 분야임.

- 건설, 환경, 에너지, Food Sector, Healthcare, ICT, 산업엔지니어링(장비, 물질), 경영과 서비스, 직업상의 안전과 보건, 운송과 물류, Water(환경과 이용), 그리고 Consumer goods, sports and services 등임.

- 이는 기존 재화 중심의 표준화 추진에서 벗어나 서비스, 또 환경, 안전 등으로 표준화 추진 흐름이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.

○ 한편, 최근 AFNOR는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를 시행, 2010년을 목표로 표준화전략을 수립, 'Normalisation 2010'을 제시하였음.

○ Contributing towards the control of globalization

- 산업과 서비스에서 새로운 가치사슬 고려
- 유럽과 국제표준화의 개발을 위해 프랑스의 위상 증진
- 모든 국가에서 국제표준화 활용 장려

○ Promoting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

- 혁신, 지역경제개발 등에서 빠른 성장 기여
- 재화와 서비스의 환경적 영향을 특성화
- 모든 이해관계자간의 상호 편의적인 관계 구현

○ Enhancing the value of standards with respect to other reference documents

- 표준의 자발적 본질에 대한 언급과 규제와의 관계 투명화
- 표준화, 포럼, 컨소시엄간의 보완성 보증
- 표준화 절차를 위한 서비스의 최상의 질 제공

○ Clarifying the standardization system and its products

- 표준과 피드백의 적응성 개발
- 표준의 투명성과 동일성 개선
- 표준의 라이프 사이클 투명화
- 표준과 표준화에 대한 교육

○ 이처럼 AFNOR는 프랑스의 표준화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하였으며,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음.

- 특히 향후 표준화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위에 제시한 전략들을 적극 추진하며,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하고 있음.

2. IEC(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sion) 총회 참관

○ 2000년대 들어 한국에서도 국제표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.

- 그러나 여전히 국제표준화는 유럽과 미국, 일본 등의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, 국제표준화 회의 참관을 통해 국내의 표준화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활동에 하는데 필요 요소의 파악이 목적이었음.

- 이를 위해 IEC 총회 중 3개의 TC에 참석, 국제표준화 회의의 진행

상황을 파악하였음.

(1) IEC에 대한 일반 현황

○ 설립 목적

- 전기 및 전자분야에서 규격에 대한 준수 확인 등과 같은 표준화에 대한 제반 현안 및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간 협력을 촉진하여 국제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임.

- 이러한 IEC의 목적은 각국의 의사를 집결한 IEC규격의 형식에 따른 권고로서 간행물을 발행하고 이것을 각국의 국가규격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달성됨.

○ 조직

- IEC는 총회, 총회상임위원회, 집행위원회, 이사회, 중앙사무국 및 각 기술위원회, 적합성평가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표준화 작업

- IEC의 표준화작업은 ISO와 공동으로 제정한 ISO/IEC Directive에 따라 이루어지므로, ISO 표준화작업 절차와 유사함.

・현재 IEC는 2005년 12월 기준으로 5,454종의 규격을 보유하고 있음.

(2) 71차 IEC 총회의 개요

○ 회의 개요

- 일시 : 2007년 10월 22일 ~ 10월 26일

- 장소 프랑스 파리
- 주최기관 : 프랑스 전기전자위원회(UTE)

○ 주요 회의별 의제

- IEC 총회

번호	의제	문서번호
1~2	총회 개최 및 의제 채택	C/1472/DA
3	2006년 제70차 총회 결과 보고서 승인	C/1453A/RM
4	선거	
	4.1 2008-2010년 임기 IEC 부회장 겸 SMB 의장 재선출(연임)	C/1461/DC C/1473/INF
	4.2 2008-2010년 임기 Rroup A CB위원 5명 선출(인원 교체)	C/1462/INF C/1474/INF
	4.3 2008-2010년 임기 자동선출 SMB 위원 6명 선출(인원교체)	C/1463/INF C/1475/INF
	4.4 2008-2010년 임기 SMB 위원 3명 선출(오, 헝, APR, 브, 덴, 네)	C/1464A/DC C/1476/INF
5	IEC 운영	
	5.1 IEC 사무총장의 보고	C/1477/INF*
	5.2 IEC 회장 연설	C/1478/INF*
6	재무보고	
	6.1 2006년도 회계 보고서 승인, 2006년도 회계에 관한 재무관기록 유념 및 2006년도 잉여금 사용 방법에 관한 제안서 승인	C/1460/DV C/1465/DV C/1479/DV
	6.2 2007년 임기 회계감사단 임명	
	6.3 2008년도 예산 사용기획 및 회원국 분담금 승인	C/1480/DV C/1481/DV
7	이사회[CB] 관련	
	이사회 활동에 대한 IEC 회장 및 부회장 보고	C/1482/R*
	IEC 정관 및 절차규정 개정	C/1483/DC
8	기타 표준화 기구와의 협력 사항	
	8.1 ISO 회장 (Mr. Murby) 연설	
	8.2 제 6차 WSC (세계표준협력체) 회의 보고서 및 후속조치 보고	C/1484/R
9	선거 결과 발표	
10	차기 회의 일정	
	10.1 2008/2009 총회 개최지 재확인(2008: 브라질, 2009: 이스라엘)	
	10.3 2010년 총회 개최지 승인(미국)	
	10.4 향후 3년간 회의 개최 신청	
11	IEC Lord Kevin Award 시상	
12	폐회	

- 표준화 관리이사회(SMB) 회의
  · 기술업무 관리보고(TC/SC 업무진행상황)
  · SMB 자문그룹, TF 팀, 전략그룹 등의 보고서
  · 신규분야 제안서(해양에너지, 고전압(UHV))
  · ISO 및 공식기술협정을 맺은 지역기구와의 협력사항
  · IEC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(Affiliate Country Program)
  · 이사회(CB)로부터 SMB에 회부된 사안

- 적합성평가이사회(CAB)
  · CAB 작업반보고(CAB 전략, 적합성평가제도, 에너지효율성)
  · 적합성평가제도 보고(IECEE, IECEx, IECQ)
  · SMB 및 CB 결정사항 보고
  · 적합성 분야 국제 및 지역기구와의 협력(ISO/CASCO, ILAC, IAF)

(3) TC 참관을 통한 현황 파악

◇ 참관 TC

○ TC1 : Terminology

- 용어 관련 표준화

○ TC111 : Environmental standardization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and systems

- 전기전자제품 및 시스템의 환경 표준화

○ TC105 : Fuel cell Technologies

- 연료전지기술 관련 표준화

◇ TC의 진행절차

○ 참관한 TC들은 모두 유사한 절차를 가지고 진행되었는데, 여기에는 TC1의 진행절차를 예시하였음.

- opening of the meeting
- approval of the agenda
- note the confirmation of the minutes of the meeting held in Berlin and review the decision taken
- information from IEC Central Office
- program of work
- strategic policy statement
- review the list of P and O member
- IEV database
- report from WG100
- liaison with other organizations
- update the Program of Work of TC1 as recorded by IEC Central Office
- any other business
- date and place of the next meeting
- close of the meeting

○ 이러한 절차를 통해 TC1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하였음.

- 특히 최근 특허표준과 관련된 논의가 다수 있는데, 실제 TC에서는 제안된 표준의 특허보유 여부에 대해 IEC의 특허정책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수준이었음.

◇ 참관을 통한 시사점

○ 이번 참관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음.

○ 우선 그 동안 다른 국가에서 진행된 경우는 모르겠지만, 파리에의 IEC 총회는 기존 한국에서 행해지는 컨퍼런스와는 다른 모습이었음.

- 한국에서는 국제회의가 진행되면, 보통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데, 이번 총회에서는 주제별, 또는 TC별로 개최되는 장소가 달라 개별 참가자가 해당 장소로 찾아가야 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.

- 그 결과 개별적으로 총회에 참석할 경우,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TC가 개최되는 장소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였음.

○ TC의 구성이나 운영 형태가 약간씩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음.

- TC1은 참가자간의 유대관계가 매우 친밀한 수준으로, 여타 새롭게 회의에 참석할 경우 관계형성에 어느 정도의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됨.

- 반면, TC111의 경우는 해당 주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, 참석자의 수가 매우 많았고, 또 그 동안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발표하는 형태를 취하였음.

○ 국제표준화 활동, 특히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해당 표준화에 대한 사전지식과 일정 수준의 언어(영어) 구사력을 가지고 있으면, 실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음.

- 그러나 의장이나 간사 등의 의장단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인식과 언어구사력은 물론, TC나 WG를 주도하는 인사들

과의 친분관계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였음.

○ 따라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전문가의 확보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.

○ 표준전문인력의 경우 언어구사력이 기본이지만,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해당 분야 주도 인력과의 친분을 확보할 전략이 요구됨.

-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인력을 표준전문가로의 전환(또는 활용)을 유도하거나 현행 국제표준화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의 보완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.

  ·특히 타 문화 및 협상의 기본자세를 이해하고, 거시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, 추진해나갈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임.

- 해당 분야의 주도 인력들과의 친분관계는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, 표준화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.

  ·국제표준화회의에 참여하는 외국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외견상 60대 이상의 고령으로, 해당 TC나 WG에 오랜 기간 참여, 상호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○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은 단기간에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 참석에 소요되는 금전적, 또는 행정적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음.

- 특히 국제표준화의 흐름이 국가의 경쟁력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.

  ·현재 한국표준협회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이와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으나, 이를 강화할 필요도 제기됨.